



혜경스님의

### 경전읽기

법화경 ㉔ 여래수랑품 제16

#### 의사와 아들의 비유

이 '여래수랑품'에는 '훌륭한 의사의 비유' 또는 '의사와 아들의 비유'라 불리는 유명한 비유가 실려져 있는데, 즐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이름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어려운 병도 거뜰히 고쳤다. 그는 또 많은 아이들을 둔 아버지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을 떠난 사이에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 때맞춰 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왔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괴로워하는 기운 데서도 기쁘게 아버지를 맞이하며 '저희들의 고통을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한다.

아버지인 이름난 의사는 아이들이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기만 해도 깨끗하고 향기도 좋은 약을 만들어 '빨리 마셔라'고 아이들에게 권한다. 증상이 가벼운 아이는 곧바로 마시고는 즉시 나왔다. 그러나 증세가 무거운 아이는 목이 몸 속에 깊이 스며들어 마음도 평정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약의 색깔이나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자 먹으려 하지 않았다.

훌륭한 의사인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중독의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서 석존은 이렇게 가르친다. "내가 언제까지나 살아있다면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언제까지라도 가르침을 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방편으로, 매우 드물게 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설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놀라고 슬퍼하며 나의 가르침을 들으려 할 것이다."

이 석존의 말씀을 통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서 '이름난 의사'는 석존, '중독된 아이들'은 미혹한 우리들, 그리고 '묘약'은 훌륭한 가르침임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돈이 항상 다 곁에 있다고 생각지 말라'고 하는 말도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의 해석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어느 시대라도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아버지의 잔소리나 훈계를 귀찮게 생각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비로소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함을 알게 된다. 이 비유도 이러한 일을 밑에 깔고, 병석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가까스로 아버지가 조제해 준 약(가르침)을 생각해 낸다고 하는 구성으로 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청와대로 향하는 4차선 도로 옆에 현대식 3층 건물의 색다른 사찰. 이곳이 태고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봉 스님(75세)이 주석하는 법혜사 포교원 흥법원이다. 스님이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법혜사에 머무르지 않고 도심포교당인 흥법원에 주석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포교원원 때문. 스님은 평생 '포교'를 화두삼아 일심(一心)으로 정진해 왔다.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법혜사에 들어서자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동도 불편한 노스님이 절을 찾은 불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계셨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거울삼아 마음을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공허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으면 모두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처님이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자신의 불성을 확연하게 믿고 싶거든 서서히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이치는 내 마음 씀씀이에서 생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체계의 동물들은 제각각 생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김 모습,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 자신의 심상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마음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 밖에는. 다른 말은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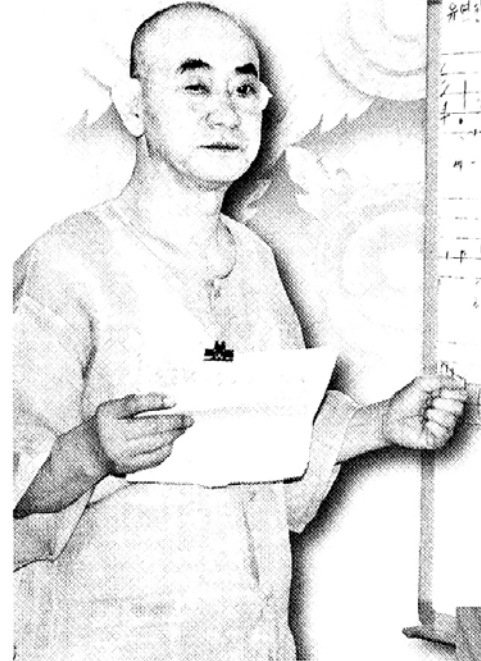
법문이 끝나고 노스님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노스님 방에는 목탁, 법고부터 키보드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꽂 들어차 있었다. 그 옆에 있는 2개의 철판에는 수없이 지우고 다시 쓴 흔적들이 역력한 음계와 가사가 찍혀 있었다.

기차도 처음에는 이것들이 스님께 소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넌지시 불교음악 법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중이 이해 못하는 법패는 죽은 음악'이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스님의 말씀은 법패가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재(齋) 의식에 수반된 노래로 인식되고 전문 법패승만이 부르는 음악으로 치부되는 현실을 꼬집는 것이리라.

일본 동양대학 음악과 2년을 수료한 스님은 30년 전인 45세 때(72년) 음악을 통한 포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젊은 시절 손놓았던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패를 배우는데 이것은 너무 어렵고 심오하여 스님들도 배우기 힘들어 수료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법패를 듣는 신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예술 장르가 음악이니 음성 포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중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끌어들이는 의미에서 학창시절에 다 소니나 배웠던 음악을 다시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현대적 개념의 찬불가라는 말이 생소했을 때였어요. 또 사찰운영이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에는 악기 마련할 자금도 없고,

## “찬탄 지극하면”



30여년간 찬불가를 작곡하여 발표한 보봉스님은 현재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 행진곡을 준비중이다.



가까이서 볼 보봉스님



8월27일 태고종 초대원로

## 충격요법으로 미혹에서 깨어나게

### 의사=석존, 묘약=불법, 아들=중생 의미

아이들이 약을 먹을 마음도 일으킬까 고심한 끝에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는 "나는 늙었으니 머지않아 죽을 것이지만 오히려 슬퍼하지 말라. 여기 내가 조제한 약을 들 것이니 마시고 싶어서 마셔라"는 말을 남기고 먼 여행길에 오른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짓 소식을 전한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은 슬퍼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 외중에도 아버지가 최후에 남긴 말씀을 생각해 낸 아이들은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약을 마실 마음이 생겨나서 약을 먹고는 간신히 병이 나왔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여행에서 돌아와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을 보고 기뻐했다.

어 있다. 다음으로 "목이 몸 속에 깊이 스며들어 마음도 평정을 잃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구절에서는 현대인의 많은 정신적 고통을 읽을 수 있다.

우리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몸에 열이 나면 스스로가 이를 알고 즉시 약을 먹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기도 하여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한다. 그러나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가운데 병세가 진행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처럼 보고 듣고 한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 잘못이다" 하는 자각 증상을 느낄 경우에는 사회나 참회에 의해 그 죄과를 가볍게 할 수 있지만 나쁜 일을 하면서도 나쁜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즉 자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다. 마치 자각증상이 없는 병이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죄의식이 없는 악행은 본인의 인간성 상실이라는 중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설정사 조실

명예인 아버지가 주는 약을 거부하는 중증 환자인 아들의 이야기는 극히 단순한 비유처럼 생각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으로 인해 생긴 슬픔이라는 충격에 의해 비로소 미혹에서 깨어나고 하는 점이다.

## 자기불성 하루빨리 깨달아

### 일상 삶 가운데 현현시켜야

수행하며 작곡을 병행하기가 힘들었지요. 그래도 길을 걸으며, 잠잘 때, 일할 때 등 시간 날 때마다 일별로 꾸준히 작곡했어요.

그러다 보니 십 수년 만에 몇 십곡을 작곡하게 됐어요. 그래서 61세(88년)가 되던 해인가 10여곡을 추려 서울시민회관에서 불교음악발표회를 했지요. 불교합창단에 오케스트라 120여명을 동원하여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신도들과 서울 시내 변화가 요소요소에서 '불음을 드립니다'라는 띠를 달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테이프를 나눠줬지요. 한국과 일본의 언론에서도 현대화된 한국불교음악이 발표됐다고 대서특필하고 해서 땀이 되는 듯 했어요. 전국에 테이프 수만 개를 보급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은 순수한 한국불교음악이 아니라 '불교가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테이프를 구하려 찾아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도 안 나눠줍니다. 이제는 전통과 현대를 결부시킨 새로운 장르의 법패 음악을 준비중이예요. 음악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새로운 불사요, 포교방법이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스님은 최근 노환으로 한쪽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신다. 스님은 안타깝다'고 했다. 포교를 위해서는 꼭 법패 음악을 완성하여 CD로 보급해야 하는데 몸이

#### 보봉스님은?

보봉 스님은 1927년 전북 전주출생으로 1945 일본 동양대학 음악과 2년을 수료하고 우연히 본 분문 불입종(佛立宗)에서 나오는 잡지 보고 불가에 입문했다. 스님은 다시 1972년 서사간동법문사에서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을 은사로 견당하여, 75년 봉원사에서 목담스님을 계사 대승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78년 불교 문교육원과 불교통신교육대학, 96년 스리랑카 피리베나대학 철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포교일명으로 수행해온 스님은 찬불가 보급 위해 직접 작곡하여 제작한 테이프 수만개를 전

#### 日 동양음대·스리랑카

말을 들지 않는다는 얘기가었다. 스님의 법상 위에는 계들이 그려진 오선지가 빼곡하게 집게로 집혀 있던 스님은 불편한 몸을 움직이시더니 철판에 그려 행진곡 '불도의 숨소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 삶의 거울인 죽음을 통해 다시 읽어보는 우리출판사의 죽음에 대한 책!!!

우리출판사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E-mail: wonbook@chollian.net

### 삶을 원하거나 죽음을 기억하라



맹만자 지음 / 신국판 / 296쪽 / 값 9,000원

#### 역사 속 인물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

'역사 속으로 떠나는 죽음 기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뒷이야기들이 사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 죽음의 순간까지 육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소크라테스, 마지막 순간을 '야 잘 좋다'며 삶에 대한 한없는 만족감을 표했던 철학자 칸트이며, 열반에 드는 순간까지 몸으로써 환구(活句)를 보여준 옛 선사들의 이야기까지 참으로 눈은 때기 어려운 '아름다운 죽음'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침된 철학자는 결코 죽음을 생각지 않는다. 철학자의 지혜는 죽음에 대한 명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한 이는 스피노자였다. 그리고 보면 죽음을 탐구하려 나가 내가 만나게 된 것도 삼이었다. 그러나 삶을 원하거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 적멸의 즐거움



정휴스님 지음 / 신국판 / 240쪽 / 값 7,000원

#### 고승들의 즐거운 죽음 이야기!

'시신을 벌레들에게 나누어주고 부도탑도 만들지 말라'는 청학스님, '열반에 들면 시신을 숲 속에 두고 들불에 타도록 하라'고 말한 혜안스님 등 충격과 정음을 느끼게 하는 여러 선사들의 일적 과정을 그렸다. 또 물구나무 서서 거꾸로 입적하거나 들 앞을 태연히 걸다가 오는 떠났다고 말하고 극락이 눈앞에 보이지만 자신은 지옥으로 가겠다는 유언을 남긴 여러 선사들의 임종계 등도 소개하였다.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다시 풀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었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본문 중에서-

### 죽어서 詩가 되는 삶이 있습니다



정휴스님 엮음 / 신국판 / 132쪽 / 값 5,000원

#### 삶과 죽음을 초월한 선사들의 깨침의 노래!

중국의 선사(禪師)와 우리 나라 역대 선사들이 죽음을 맞아 토해낸 열반송을 정휴스님이 짧은 시 형식으로 풀이하였다. 나고 죽는 일에 초연해지는 것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 정진해오신가. 선사들은 죽음을 사랑하고 즐겼다. 죽음을 죽음이 아니게 하는 힘, 그것이 수행의 절정이라고 말한 선사의 글에서 불교사상의 정수 및 선(禪)의 진수를 느낄 것이다.

이 禪(임종계)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이 임종을 준비하는 떠남의 언어가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진리회귀의 영혼의 모음이 있으며, 앉아서 열반하기가 싫어서 입적하는 해탈의 몸짓이 있으며, 걸다가 문득 명상에 잠겨 보리수 앞을 잡고 입적하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비록 진리가 언어를 떠나 있다 허더라도 선사들이 남긴 임종계 속에는 해탈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정스님 엮음 / 신국판 / 232쪽 / 값 6,000원

#### 죽음과 환생 사이의 영혼을 제도하는 밀교와 정도의 가르침!

티베트의 불교인들은 생일 잔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수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기 현정스님의 책은 잘 죽기 위한 가르침인 정도신앙의 왕생 해탈 법과 밀교의 중음신 해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울었고, 내 물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웃었고, 내 물레의 사람들은 모두 슬피 울고 기뻐하였다.'

-린포체-